「한국지방행정학보」 제19권 제2호(2022. 8): 49-73
DOI https://doi.org/10.32427/klar.2022.19.2.49

제대군인의 창업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Effects of Veterans' Start-up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Behavior

-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fficacy -

최 대 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과정 - 주저자)
양 동 우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교수 - 교신저자)

Abstract

Dae-Keun Choi / Dong-Woo Yang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veterans' start-up competency on the entrepreneurial behavior by mediating their entrepreneurial efficacy was analyzed. The sub-variables of start-up competency consisted of management competency, creative competency, and technical/professional competency. 318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veterans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For data analysis, statistical tools of SPSS Win Ver.22.0 and PROCESS macro3.5 were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management competency, creative competency, and technical/professional competency, which are sub-variables of start-up competency, all had a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ial efficacy. The effect of management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efficacy was found to be the largest, and creativity competency was found to have the smallest effect. Second, entrepreneurial effica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entrepreneurial behavior. Third, it was found that only management competency and creative competency, which are sub-variables of start-up competency, had a positive (+) effect on entrepreneurial behavior, but the effect of technology/professional competency was not significant. It was found that management competency has a greater effect on entrepreneurial behavior than creative competency. Fourth, entrepreneurial efficacy was found to mediate between management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between technology/professional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entrepreneurial efficacy did not mediate between creative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behavior. This study has a tendency to be biased towards military background, so there is a limit to the generalization of the results. In addition, since the start-up competency adopted in this study is not an absolute measurement item, there is a limit to the accurate explanation of the entrepreneurial behavio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research not only on entrepreneurial behavior but also on entrepreneurship succes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future research is needed to discover other variables in detail.

Keywords: veterans, management competency, creative competency, technology/professional competency, entrepreneurial efficacy, entrepreneurial behavior

I. 서 론

최근 국방개혁 등의 국방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국방 인력의 감축 때문에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의 생활이 일반 사회생활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제대군인들은 사회적응이 어려워 사회정착이 쉽지 않다. 조기 전역 경우에는 군대의 경력과 사회의 부자연스러운 연계로 인해 많은 제대군인들이 재취업이나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매년 7천여 명 정도의 장기복무 군인이 전역 후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e-나라지표, 제대군인 현황, 2020). 우수한 군 인적자원 확보뿐만 아니라 이들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는 안정된 생활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제대군인들에 대한 재취업과 창업에 대한 지원 방안의 수립이 절실하다.

최근 경제 상황은 직업의 세분화로 인해 전문성을 요구하는 추세가 증가되고 있어 전역군인의 재취업에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창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경제 상황은 전역 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사실에 미루어 볼 때 제대군인들을 위한 창업지원에 대한 계획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맞추어 국방전직교육원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실시하여 귀농·귀촌의 창업계획과 설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 소재한(서울, 경기남부, 경기북부,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제대군인 지원세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 특별 고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대군인들의 창업지원의 비중과 지원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 중에는 창업 이후 창업실패의 책임 소재에 대한 위험관리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물론 창업에는 여러 형태의 위험요소가 내재하고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전역군인들이 창업을 시도하므로 창업 성공률은 매우 저조하다. 민간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업에 대한 관심도와 지원제도에 비해 제대군인들을 위한 창업교육과 지원제도는 아직 초보단계이므로 제대군인의 창업 실패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제대군인들의 재취업 지원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제대군인들에 대한 재취업을 위한 전직 교육과 관련 발전방안이나 정책적 제언에 대한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다(남응우, 2014; 이기성, 2016; 이호진, 2018).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양적 연구가 일부 이루어져 왔다(김용식·하규수, 2011; 김정은, 2016; 정수성, 2019).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창업의도, 창업의욕, 창업마인드 등 창업 프로세스 중 창업의지까지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사용된 독립변수들은 군 근무기간, 계, 병과구분 등 군 복무 경력 특성, 기업가정신 및 심리적 요인인 성취욕구, 자기효능감과 같은 내적요인 등이었다. 이는 실제 창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설명력이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는 창

업의지 까지만 다루었지만 본 연구는 창업의지 후 생성되는 창업의 집행인 창업행동까지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실지 창업의 집행 실지 창업을 위해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업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창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창업역량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여 기존 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를 참고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제대군인의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요인들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제대군인들의 잠재적인 창업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고 한다. 또한 창업역량이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로부터 시사점을 제시하여 이를 제대군인들의 효율적인 창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창업교육과 창업지원정책에 반영하여 전역 후 창업을 통해 원활한 사회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Ⅱ. 이론적 배경

1. 제대군인의 정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법률 제16034호, 2018. 12.24.)」에 의하면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 "제대군인"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퇴역·면역(免役)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 사람을 말한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2018. 6. 14.). "장기복무 제대군인"이란 1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이며, "중기복무 제대군인"이란 5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동안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사람을 말한다(법률 제15054호, 2018. 5. 29). 군 복무 후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전역 또는 제대한다고 하며, 병역의무 기간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를 예외로 하고, 장교·준사관·부사관의 경우는 군인사법상 해당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이며 이 기간이 종료되면 장교·준사관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退役)되며, 이에 비해 전역(轉役)이란 현역복무를 마치고 역종이 변경되어 더 이상 현역의 신분이 아니라는 의미이다(병역법 법률 제15054호, 2018. 5. 29).

2. 창업역량

1) 개념과 구성요인

자원기반이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은 창업가의 창업가적 능력이나 경

영능력, 과거의 창업경험 및 개인적 네트워크등과 같은 창업가의 개인적인 능력 및 사회적 배경 특성과 같은 요소에 주목하고 있다(Chandler & Jansen, 1992).

창업역량은 창업가가 비즈니스 성공을 달성 및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태도 및 행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인적 특성으로 정의된다(Ahmad, 2007). 뛰어난 역량을 갖춘 창업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은 다른 기업과는 차별화된 고유한 자원을 확보, 개발 및 활용하게 되며 그 결과 더 향상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Barazandeh et al., 2015; 이혜영·김진수, 2017).

앞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의 창업역량은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 수 있는 창업에 필요한 창업가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특성과 성격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창업역량을 전략적 사고 역량, 창의성역량, 성취역량, 사회적역량, 조직적역량, 기술적역량, 시장인지역량 등으로 구분하였다(양수희 외, 2011). 기회인식, 기회평가, 위험관리/완화, 강력한 비전 전달, 창의적 문제 해결, 자원 활용, 가치창출, 탄력성, 집중 및 적용, 창업효능감 등을 창업역량으로 제시하였다(Morris et al., 2013). 창업역량은 기업가역량, 경영역량 및 대인관계역량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Alvarez & Baney, 2017; 강병승, 2020). 임아름(2015)은 자원기반이론 관점에서 창업역량을 관리역량, 기술역량, 기업가적역량, 창의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서성렬(2019)은 창업가역량을 기술적역량과 창의적역량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창업가 역량에 바탕을 두고 높은 경영성과를 낼 수 있는 지식, 능력, 기술에 기반을 두고 창업가의 창의역량, 관리역량, 기술역량, 기업가정신의 네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준구(2021)는 창업역량의 하위요인으로 창의적역량, 관리적역량. 기술적역량으로 설정하였다.

앞에서 고찰된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자원기반이론에 근거하여 창업역량의 하위요인으로 관리역량, 창의역량, 기술·전문가역량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관리역량

관리역량은 창업기업이 창업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고 말하고 고객 및 직원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해당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Hughes & Morgan, 2006). 창업역량 중 관리적 역량으로 볼 수 있는 관리역량과 기업경영능력은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형진 외, 2015). 관리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관리 역량은 창업가가 조직을 구성하고 조직의 구성원과 조직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이기만, 2018).

관리적 역량은 구성원을 잘 통솔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조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창업가의 능력으로 리더십 능력,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영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 직원들과 소통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비전을 설명하여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능력 등으로 조직을 올바르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창업가의 능력이다.(이준구, 2021).

(2) 창의역량

창의역량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개인의 능력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능력을 보유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창의적 역량이란 새롭고, 적절하거나 유용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변수들과 대상들을 결합시키는 능력이다(Morris et al., 2013).

창업가의 창의역량은 새롭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의 것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창출해 내는 능력으로 기업 활동 속에서 연구개발, 신제품 개발, 서비스 개발, 업그레이드된 제품라인 등의 기술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이기만, 2018). 창업역량 중 창의적 역량은 관련분야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이준구, 2021).

창의 역량은 개인의 동기부여 정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위험에 대한 감수의지가 창업의 배경에 있을 때 창업가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의 큰 원동력이 된다.

(3) 기술·전문가역량

기술혁신 역량을 기존 기술지식의 효과적 활용능력 뿐만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고 혁신역량은 기업의 기술, 제품, 프로세스, 지식, 경험 및 조직을 포함한 특정 자산 또는 역량으로 기업의 기술혁신전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포괄적 기업특성이다(Guan & Ma, 2003).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 등은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임아름, 2015). 기술적 역량은 생산 및 제품개발, 서비스 개발 등 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하며, 창업가들이 가지고 있어야하는 창업가 역량특성의 핵심적 역량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이준구, 2021).

본 연구에서는 기술·전문가능력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경쟁업체와의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 확보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관련분야에 전문화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2) 창업역량의 선행연구

창업가 특성 중에서 관리역량은 조직성과에 긍정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다경·엄태호, 2014; 성옥석·박승락, 2015; 김대임, 2015). 청년 창업가의 창업역량 중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년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이 창업의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적 역량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성렬, 2018).

창업역량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창업 성과(performance)와 함께 연구되어 왔고, 창업역량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양수희 외, 2011).

창업역량의 하위 변수를 경영역량, 기업가역량, 대인관계역량으로 구분한 강병승(2020)의 연구에서는 기업가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정(+) 영향을 미치고 경영역량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영역량과 기업가역량은 기회인식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대인관계역량은 기회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창업효능감

사회과학 분야에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의 개념은 창업분야에서 창업자기적역량과 교육분야에서 학습자기적역량으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창업효능감의 개념을 창업 연구에서 언급한 연구에서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지각된 행동이 통제력과 함께 대체될 수 있는 개념으로 창업효능감을 제시하였다(Boyd & Bozikis, 1994). 창업효능감이 개인의 선택, 노력수준 및 인내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람의 목적 수행 행동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다(Chen et al., 2004).

창업효능감은 특정한 업무나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자신감으로 표현되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나 위험요소에서 창업을 위한 목표, 주어진 상황에 맞는 행동들의 과정을 움직일 수 있는 개인들의 신념, 개인적인 선택 또는 욕구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된다(신향숙, 2021).

채연희(2016)는 자기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정(+)의영향이 유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였다.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및 기업가지향성이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부분적이나마 정(+)의 영향을 미치고, 창업기회인식 또한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강재학·하규수, 2015).

경영역량, 기업가 역량 그리고 대인관계역량으로 구분된 창업 역량이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기업가 역량과 대인관계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영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승. 2020).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개인역량들과 실무역량들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효능감은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향숙, 2021).

4. 창업행동

창업행동은 창업자의 특성가운데 실제행동으로 나타나는 속성이며, 발견행동과 개척활동으로 구분하여 발견행동에는 창업아이디어의 규명과 재발견,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탐색, 토론, 교육 활동 및 기회포착 노력여부로 구분하고, 개척행동으로는 창업아이디어에 대한 실행과정, 자금 투여 시점 인지, 본인 자금의 투여 여부, 직원 구인 활동, 특허 등 지적 재산권 취득 활동,

창업 준비를 위한 시간 확대 노력으로 구분하였다(김재호, 2013).

창업행동이라 함은 사업아이템이 선택되면 그 아이템을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아이템이 선택으로부터 사업화하기 위한 노력이다(이영휘, 2021).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창업의도까지만 언급하거나, 창업의도 단계를 경유하지 않고 창업행동을 종속변수로 한 연구는 기존연구의 한계점이다.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행동(기회발견과 기회활용)은 경영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Locke & Collins, 2016). 창업의도는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기회는 창업행동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 아이디어 및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박경애, 2017). 창업가 특성은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창업행동은 창업기회를 발견하고 이를 통해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을 이해하는데 창업가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유승옥, 2019).

5. 변수 간의 관계

1) 창업역량과 창업효능감의 관계

인적 자본 이론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지식, 기술 및 기타 역량(자본, 자산)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이 낮은 수준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였다(Ployhart & Moliterno, 2011).

창의성 역량 교육을 통해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은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쳐, 그 결과 창업효능감과 창업의지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안태욱 외, 2017). 대학생들이 IT 역량, 창의성 역량, 사회적 역량, 시장인지 역량 등의 창업역량을 가질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아지고, 높은 창업의도도 갖게 된다(최대수·성창수, 2017).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개인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실무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향숙,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여 창업역량과 창업효능감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2) 창업효능감과 창업행동의 관계

창업행동 간의 관계 등을 포함하여 창업효능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창업과 관련하여 창업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업효능감과 창업행동와의 관계(김나미·김신섭, 2013), 신체적 창업효능감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이윤구, 윤용진, 2015).

창업효능감은 창업의도를 예측하는 변수로 새로운 창업에 대한 인지된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쳐 창업의도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친다(Krueger et al, 2000). 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다양한 기회들이 주어지지만 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위험 및 희생이 존재하는 환경으로 평가되어 기회가 감소된다고 하였으며 창업효능감이 높을수록 행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cGee et al., 2009).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업도전감, 자기효능감은 창업행동의 하위요인인 기회발견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과업도전감, 자기조절 효능감은 창업행동의 하위요인인 기회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쳐 자기효능감은 학습동기와 창업행동의 관계에서 부분적으로 매개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휘,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과 창업행동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창업행동과 관계가 있는 구성요인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관계를 검정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창업행동에 미치는 요인으로 창업역량, 창업효능감을 도입하였다.

제대군인들의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관련된 가설의 근거 제시를 위한 선행연구로는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는 관리역량, 창의역량 및 기술·전문가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창업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연구모형 중심으로 가설을 설정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통과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인 매개효과를 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런 추론을 위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즉 매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창업역량이 매개변수인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인 창업역량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효능감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의 검정이 필요하다.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창업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매개(간접)효과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였다.

1)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가설 H1. 창업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창업역량의 관리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2. 창업역량의 창의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창업역량의 기술·전문가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H2. 창업역량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효능감은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창업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설 H3. 창업역량은 창업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1. 창업역량의 관리역량은 창업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2. 창업역량의 창의역량은 창업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3. 창업역량의 기술·전문가역량은 창업행동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 칠 것이다.

4) 매개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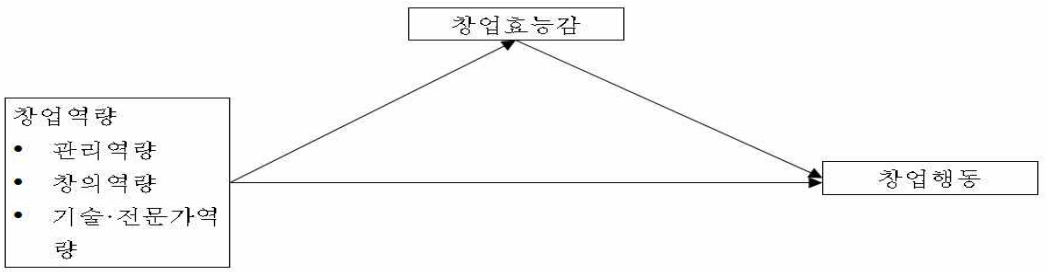
가설 H4. 창업효능감은 창업역량과 창업행동 간을 매개할 것이다.
H4.1. 창업효능감은 창업역량의 관리역량과 창업행동 간을 매개할 것이다.
H4.2. 창업효능감은 창업역량의 창의역량과 창업행동 간을 매개할 것이다.
H4.3. 창업효능감은 창업역량의 기술·전문가역량과 창업행동 간 을 매개할 것 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제대군인의 창업행동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주된 연구 내용은 제대군인의 창업역량의 관리역량, 창의역량, 기술·전문가역량이 제대군인의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독립변수인 창업역량과 종속변수인 창업행동과의 관계 중에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다.

위 가설을 기반으로 제대군인의 창업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효능감을 매개변수로 하는 단순매개모형을 기반 하여 창업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과 창업효능감의 창업역량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 제시된 근거로 하여 설정된 가정이 결합된 연구모형을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매개모형으로

간접효과를 추론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설문조사는 재향군인회의 제대군인 명단에서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실증 분석용 데이터 수집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Naver Office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Pre-test를 통하여 발견된 문제점이 수정·보완된 최종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배포된 총 450부의 설문지중 총 373부가 수집되었고 답변이 불성실하거나 결측값이 있는 설문지 55부를 제외한 총 318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에 SPSS Win Ver.22.0, PROCESS macro v3.5의 통계 도구를 사용하였다. SPSS를 이용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대상자의 배경변수별 특성을 살펴보았고,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한 타당도를 검증으로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파악하였다. Cronbach's α계수를 이용한 신뢰도분석으로 측정변수의 일관성을 파악하였다. 상관분석으로 변수 간의 상호관련성을 측정하였다. 다중회귀분석으로 변수들 간의 관계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의 단순매개모형인 Model 4를 이용하여 창업효능감을 경유하는 창업역량이 제대군인의 창업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추론하였다.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에 95% Bootstrap 신뢰구간 검정이 사용되었다.

4.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도구

연구모형에서 사용된 구성개념이나 잠재변수를 대표할 수 있도록 구성개념의 조작적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통해 측정 가능한 변수들로 구성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한 구성개념은 복수의 다른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다. 선행연구에서 내려진 복수의 가능한 조작적정의 중 본 연구의 내용에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창업역량

창업역량은 창업자가 성공적인 창업을 이끌 수 있도록 창업가가 보유해야할 특성과 성격으로 정의한다.

① 관리역량

관리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창업가가 평소 직원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 일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 직원들을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직원들에게 평소 조직의 비전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는지, 직원들의 조직 생활과 관련된 일을 잘 알고 있는지, 직원들을 지도하는 능력이 탁월한지, 능력 있는 직원에게는 권한을 적절히 위임하는지를 평가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② 창의역량

창의적 역량이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생각을 자주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어떤 일을 추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으로 정의한다.

③ 기술·전문가역량

기술·전문가능력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경쟁업체와의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문적인 기술 확보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며 관련분야에 전문화된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2)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은 창업 시 발생하는 장애요인을 극복하고 특정한 업무나 상황에서 가지게 되는 자신감으로 표현되고,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이나 위험요소에서 창업을 위한 목표, 주어진 상황에 맞는 행동들의 과정을 움직일 수 있는 개인들의 신념, 개인적인 선택 또는 욕구에 대한 신념으로 정의한다.

(3) 창업행동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창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제품과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투자하고, 인재를 모집하고, 창업교육을 통해 창업을 배우는 것으로 정의한다.

2) 측정도구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수로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연령, 성별, 학력, 결혼 여부, 자가 보유 여부와 군과 관련된 소속 군, 병과, 전역 시 계급, 연금 수령액, 복무기간 등 10개 문항을 선정하여 명목척도로 문항들을 측정하였다. 독립변수는 관리역량 6개 문항, 창의역량 6개 문항, 기술·전문가역량 6개 문항)등 창업역량 총 18개 문항, 창업자기효능감 6개 문항, 창업행동 7개 문항 등은 Likert의 5점 척도로 문항들을 측정하였다.

〈표 1〉 측정도구

변수	설문항
관리역량	1. 나는 직원들을 잘 통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 2. 나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직원들을 설득하는데 재주가 있다. 3.나는 평수 직원들에게 비번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4. 나는 직원들의 조직생활과 관련된 일에 잘 알고 있다., 5.나는 직원들을 지도하는 능력이 있다. 6. 나는 능력 있는 직원에게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출처; 임아름(2015), 이기만(2018), 이준구(2021)),
창의역량	7. 나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8. 나는 문제발생시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을 시도해 본다., 9. 나는 남보다 먼저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려고 한다., 10. 나는 생각이 참신하다는 이야기를 주위사람들로 부터 자주 듣는다., 11. 나는 문제해결 시 나만의 독특한 해결책을 생각해 낸다., 12.나는 업무추진 방식이 창의적이라는 이야기를 주위사람들로 부터 자주 듣는다(출처;.임아름(2015), 이기만(2018), 이준구(2021)).
기술·전문가역량	13. 나는 관련 분야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 14. 나는 경쟁자와 비교하여 기술혁신 능력이 뛰어나다., 15. 나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6. 나는 관련 분야에 적용되는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 17. 나는 전문화된 분야의 기술을 사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18. 나는 경쟁업체에 비하여 기술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출처; 임아름(2015), 이기만(2018), 이준구(2021)),
창업효능감	1. 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의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2. 나는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3. 내가 하는 업무활동은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 4. 나는 일을 할 때 나의 능력을 확신한다., 5. 나는 하는 일에 필요한 기술들을 스스로 터득한다., 6. 나는 업무활동을 수행할 때 내 능력에 대해 스스로 확신한다.(출처;Shane et al.(2003), 강재학(2016).
창업행동	1.나는 창업할 때 창업아이디어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의논 할 것이다., 2. 나는 창업제품과 서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의논 할 것이다., 3. 나는 창업기회를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4. 나는 창업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5. 나는 창업을 같이할 인재를 모집할 것이다., 6. 나는 창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창업교육을 통해 배울 것이다., 7. 나는 창업을 위해 정보를 수집해 볼 것이다.(출처;김재호(2013), 서성렬(2019), 이영휘(2021))

5.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조사대상자 318명의 배경변수별 특성을 연령, 성별, 학력, 결혼 여부, 소속 군, 병과, 전역 시 계급, 자가 보유 여부, 연금 수령액, 복무기간 등으로 구분한 빈도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성별 분포에서는 여성(9.8%, 31명)이 남성(90.2%, 287명)보다 아주 적게 조사되었다. 연령분포는 60세 이상(51.5%, 164명)이 가장 크게, 50세 미만(8.3%, 27명)이 가장 작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혼 여부에서는 기혼(95.3%, 303), 미혼(3.0%, 10명), 기타(1.5%, 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학교 졸업(43.2%, 137명), 대학원 졸업(32.6%, 104명), 전문대졸업(17.4%, 55명), 고등학교 졸업(6.8%, 2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학력자가 70%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 소속은 육군(72.6%, 231명), 해군(14.8%, 47명), 공군(7.9%, 25명), 해병대(4.7%, 15명)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병과 분포는 전투병과(71.2%, 226명), 행정병과(16.7%, 53명), 기술병과(9.8%, 31명), 특수병과(2.3%, 7명)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전역 시 계급은 소령(31.1%, 99명), 대위(22.0%, 70명), 중령(15.2%, 48명), 대령(8.3%, 27명), 원사(6.8%, 22명), 준위(5.3%, 17명), 중사(4.5%, 14명), 상사(3.8%, 12명), 하사(3.0%, 10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자가 보유 여부에서는 자가(90.2%, 287명), 월세(6.1%, 19명), 전세(3.8%, 12명)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금 수령액은 없음(32.6%, 104명), 300~400 만원 미만(24.2%, 77명), 200~300 만원 미만(18.9%, 60명), 100~200 만원 미만(11.4%, 36명), 400만 원 이상(8.3%, 27명), 100만원 미만(4.5%, 14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무 기간 분포는 20년 이상(45.5%, 145명)이 가장 많고, 15~20년 미만(14.8%, 47명)의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수	%	
성별	①남성	287	90.2
	②여성	31	9.8
연령	①50세 미만	27	8.3
	②50~55세 미만	41	12.9
	③55~60세 미만	87	27.3
	④60세 이상	164	51.5
결혼 여부	①미혼	10	3.0
	②기혼	303	95.3
	③기타	5	1.5
학력	①고등학교 졸업	22	6.8
	②전문대 졸업	55	17.4
	③대학교 졸업	137	43.2
	④대학원 졸업	104	32.6
소속 군	①육군	301	94.7
	②해군	7	2.3
	③공군	5	1.5
	④해병대	5	1.5

병과	①전투병과	226	71.2
	②행정병과	53	16.7
	③기술병과	31	9.8
	④특수병과	7	2.3
전역 시 계급	①하사	10	3.0
	②중사	14	4.5
	③상사	12	3.8
	④원사	22	6.8
	⑤준위	17	5.3
	⑥대위	70	22.0
	⑦소령	99	31.1
	⑧중령	48	15.2
	⑨대령	27	8.3
자가 보유 여부	①자가	287	90.2
	②전세	12	3.8
	③월세	19	6.1
연금 수령액	①없음	104	32.6
	②100만 원 미만	14	4.5
	③100~200만 원 미만	36	11.4
	④200~300만 원 미만	60	18.9
	⑤300~400만 원 미만	77	24.2
	⑥400만 원 이상	27	8.3
복무기간	①10년 미만	77	24.2
	②10~15년 미만	49	15.4
	③15~20년 미만	47	14.8
	④20년 이상	145	45.5

6.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1) 타당도 분석

타당도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신뢰성은 특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안정성, 일관성, 예측가능성, 정확성을 나타낸다(이훈영, 2012).

표본의 적절성을 KMO(Kaiser-Meyer-Olkim) 검정을 통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KMO 값은 .8이상(.855)으로 나타나 적절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변수가 변수 쌍의 상관을 설명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사용된 변수들의 선정이 요인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판

단되었다. 아울러,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으로 변수들의 선형성을 판단하였다. 분석 결과, 유의확률이 .000으로 나타나서 상관행렬이 단위행렬이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데이터가 요인분석을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요인회전은 배리맥스로 설정하였다. 요인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은 공통성은 .5 이상, 요인적재량은 .5 이상으로 지정하였다. 분석결과 eigenvalues(고유값)가 1보다 큰 다섯 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추출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었다, 요인모델의 총 누적설명변량은 68.267%로 나타나 데이터의 모형에 대한 설명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에 할당된 변수 값들의 평균을 요인 값으로 변환하여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표 3〉 요인분석

	구성요소				
	창업행동	기술전문가역량	관리역량	창업효능감	창의역량
창업행동3	.866	.066	-.002	.189	.188
창업행동4	.844	.009	.168	.140	.093
창업행동7	.838	.095	.233	.136	-.048
창업행동5	.832	.175	.136	.123	.068
창업행동6	.805	.142	.225	.077	.036
창업행동2	.764	-.004	-.043	.130	.308
창업행동1	.649	-.013	.069	.251	.193
기술전문가역량2	.004	.825	.094	.072	.149
기술전문가역량5	.014	.814	.025	.189	.001
기술전문가역량4	.106	.790	.097	.108	.038
기술전문가역량3	.108	.683	.119	.196	.264
기술전문가역량1	.118	.656	.044	.021	.306
관리역량2	.062	.108	.747	.229	.211
관리역량1	.065	-.023	.733	.261	.163
관리역량5	.376	.080	.697	.031	.215
관리역량4	.141	.182	.670	.103	.190
창업효능감1	.225	.178	.079	.863	.078
창업효능감2	.222	.136	.237	.836	.146
창업효능감3	.290	.248	.283	.674	.079
창업효능감4	.294	.195	.333	.533	.274
창의역량6	.069	.167	.230	.073	.761
창의역량4	.165	.129	.227	.110	.753
창의역량5	.139	.315	.120	.282	.681
창의역량2	.278	.145	.307	.019	.605
고유값	5.113	3.294	2.689	2.678	2.610
분산의%	21.306	13.727	11.204	11.157	10.874
누적설명변량	21.306	35.032	46.236	57.393	68.267
KMO 측도 = .855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 1991.799, 유의 확률 = .000					

2) 신뢰도 분석

신뢰도란 측정대상에 대한 일관성 측정지표이다. 측정대상을 여러 번 측정한 조사결과들이

얼마나 일치하는가를 나타내는 일관성 정도에 따라 신뢰성을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신뢰성 평가방법 중 하나인 가장 널리 채택되는 내적일관성법을 사용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내적일관성법(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method)은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항목을 이용하는 경우에 항목 내의 분산을 증가시켜 전체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항목을 찾아내어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된다(이훈영, 2012).

본 연구에 포함된 모든 변수의 Cronbach's α계수는 관리역량(=.790), 창의역량(=.809), 기술·전문가역량(=.847), 창업효능감(=.874), 창업행동(=.928)으로 모두 .7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의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판단 할 수 있다.

Ⅳ. 분석결과

1. 상관관계 분석

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상관관계 분석이다.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 설명해준다. 일반적으로 ±.81~±1.0 범위이면 상관관계 크기가 매우 크고, ±.61~±.80 이면 크기가 강하고, ±.41~±.60이면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있고, ±.21~±.40이면 상관관계가 약하고, ±.00~±.20이면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특히 ±.81~±1.0 범위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이일현, 2014). ±.81~±1.0 범위에 해당되는 상관계수가 존재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는 유의한 정(+)의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수들 간에 연관성이 있다.

〈표 4〉 상관관계

	관리역량	창의역량	기술전문가역량	창업효능감	창업행동
관리역량	1				
창의역량	.548***	1			
기술전문가역량	.292***	.449***	1		
창업효능감	.526***	.465***	.415***	1	
창업행동	.395***	.413***	.232***	.504***	1

*P〈.05, **P〈.01, ***P〈.001

2. 가설의 검정

제대군인의 창업역량(관리역량, 창의역량, 기술·전문가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행동을 종속변수로 매개변수가 하나인 단순매개모형 기반으로 창업효능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창업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였다. 도출된 가설에 대한 검정은 창업역량과 창업효능감, 창업효능감과 창업행동, 창업역량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 창업효능감을 경유하는 창업행동에 대한 창업역량의 간접효과 등의 검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다중공선성으로 독립변수 간의 독립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VIF)를 이용였다. 10보다 작은(1.690이하) VIF 결과 다중공선성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방향성 연구 가설에는 단측검정을 비 방향성 가설에는 양측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모든 통계 package는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는 양측검증의 p값을 산출해주기 있기 때문에 단측검정의 유의성은 산출되는 p값의 1/2로 검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관계 가설은 모두 양방향 가설이므로 SPSS에서 제시된 유의확률의 1/2로 검정하여야 한다.

단순매개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이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10,000회 반복하여 Bootstrap 표본을 추출하였고 표본들의 편의수정 95% 신뢰구간 Bootstrap을 사용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이 경우 검정 방법은 Bootstrap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으면 간접효과는 유의적이라고 결론 내린다.

1)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창업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바와 같이 관리역량(B=.414, p=.000), 창의역량(B=178, p=.038) 및 기술·전문가역량(B=.239, p=.002)은 창업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설 H1.1, H1.2, H1.3은 모두 지지되었다. 창업역량이 높아질수록 창업효능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계수를 이용하여 창업역량의 하위변수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보면 관리역량(β=.370), 기술·전문가역량(β=.235), 창의역량(β=.160)의 순으로 나타나 관리역량이 창업효능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창의역량이 창업효능감에 가장 작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역량은 창업효능감의 총 분산을 39.1% 설명하고 있다(F=16.193, R^2=.391).

창업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고 창업행동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바와 같이 관리역량(B=.288, p=.005), 창의역량(B=312, p=.003)은 창업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나 기술·전문가역량(B=.043, p=.321)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유

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H3.1, H3.2는 지지되었고 가설 H3.3은 기각되었다. 관리역량과 창의역량이 높아질수록 창업행동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화계수를 이용하여 창업역량의 하위변수가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상대적인 크기를 비교해보면 창의역량(β=.272)이 관리역량(β=.240)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창의역량이 관리역량보다 창업행동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역량은 창업행동의 총 분산을 25.9% 설명하고 있다(F=8.828, R^2=.259).

〈표 5〉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과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			창업행동			VIF
	B	β	t	B	β	t	
(상수)	.279		1.713*	.751		1.547	
주택D_자가	.386	.196	3.250*	.540	.256	2.668**	1.566
주택D_전세	.452	.147	1.674*	.735	.223	2.310*	1.591
관리역량	.414	.370	4.396***	.288	.240	2.592**	1.464
창의역량	.178	.160	1.797*	.322	.272	2.761**	1.648
기술·전문가역량	.238	.235	3.015*	.043	.040	.465	1.262
R^2	.391			.259			
F	16.193***			8.828***			

*P〈.05, **P〈.01, ***P〈.001

2)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역량과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므로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이를 위해 창업역량의 하위변수(관리역량, 창의역량, 기술·전문가역량)와 창업효능감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창업행동을 종속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에 제시된바와 같이 창업효능감(B=.358, p=.000)은 창업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가설 H2는 지지되었다. 창업역량과 독립적으로 창업효능감이 커질수록 창업행동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역량과 창업효능감은 창업행동의 총 분산을 32.8% 설명하고 있다(F=10.165, R^2=.328).

〈표 6〉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행동			VIF
		B	β	t	
(상수)		.651		1.399	
통제변수	주택D_자가	.401	.190	2.034	1.629
	주택D_전세	.573	.174	1.862	1.627
창업역량	관리역량	.139	.116	1.034	1.689
	창의역량	.258	.113	2.286*	1.690
	기술·전문가역량	-.042	-.039	-.456	1.353
창업효능감		.358	.335	3.569***	1.643
R2		.328			
F		10.165***			

*P〈.05, **P〈.01, ***P〈.001

4) 매개효과

Bootstrap 표본을 10,000회 반복하여 추출하고 표본들의 신뢰구간은 편의수정 95%. Bootstrap을 사용하여 창업역량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Bootstrap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적이다. 간접효과는 독립변수가 한 단위 차이가 날 때 매개변수들을 경유하여 나타나는 종속변수의 차이에 대한 효과를 계량화 한 것이며 간접효과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매개변수를 통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에서와 같이 관리역량→창업효능감→창업행동의 간접효과 크기는 .148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술·전문가역량→창업의도→창업행동의 간접효과 크기는 .085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간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창의역량→창업효능감→창업행동의 간접효과 크기는 .064로 나타났으며, Bootstrap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므로 간접효과는 비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4.1과 H4.3은 지지되었고 가설 H4.2는 기각되었다.

검정 결과의 의미를 살펴보면 관리역량이 창업효능감을 경유하여 관리역량이 한 단위 증가하면 관리역량이 창업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을 증가시켜 관리역량이 한 단위 증가하면 관리역량이 창업효능감을 경유하여 관리역량이 한 단위 작은 경우보다 창업행동이 .167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술·전문가역량이 창업효능감을 경유하여 기술·전문가역량이 한 단위 증가하면 관리역량이 창업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을 증가시켜 기술·전문가역량이 한 단위 증가하면 기술·전문가역량이 창업효능감을 경유하여 기술·전문가역량이 한 단위 작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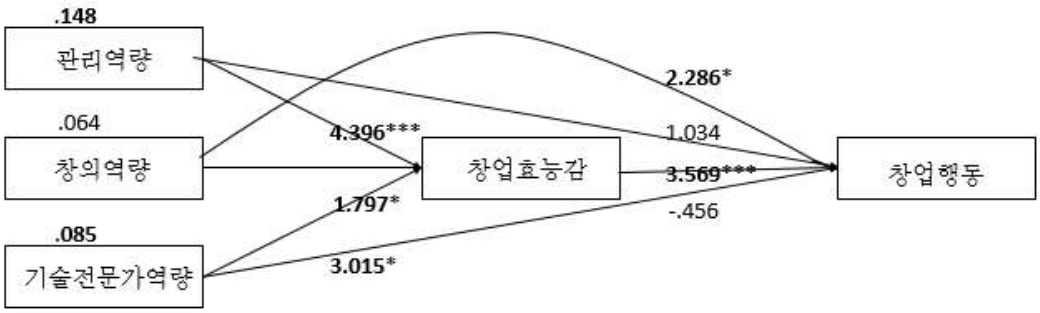
보다 창업행동이 .085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창업행동에 대한 창업역량의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관리역량→창업효능감→창업행동	.148	.044	.284
창의역량→창업효능감→창업행동	.064	-.007	.169
기술·전문가역량→창업효능감→창업행동	.085	.021	.171

주) Boot=Bootstrapping; LLCI(신뢰구간 하한 값)=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ULCI(신뢰구간 상한 값)=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이상의 결과를 모형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매개효과 검정 결과

V. 결 론

분석결과, 첫째, 창업역량의 하위변수인 관리역량, 창의역량, 기술·전문가 역량 모두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역량이 증가할수록 창업효능감은 커지고, 관리역량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고 창의역량이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다. 둘째, 창업효능감은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효능감이 커질수록 창업행동이 증가한다. 창업행동을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창업역량의 하위변수인 관리역량, 창의역량만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전문가 역량이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관리역량과 창의역량이 증가할수록 창업행동은 높아지고 관리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창의역량이 미치는 것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넷째, 창업효능감은 관리역량과 창업행동 간을, 기술·전문가 역량과 창업행동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창업효능감은 창의역량과 창업행동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창업역량을 관리역량, 창의역량 및 기술·전문가 역량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를 창업효능감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둘째, 기술·전문가 역량은 직접적으로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매개변수인 창업효능감이 도입되면 기술·전문가 역량이 창업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셋째, 창의역량은 창업행동에 영향을 미치지만 창업효능감이 창업행동에 대한 창의역량의 간잡효과는 없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이는 창의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창업효능감 외에 제 3의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창업역량과 창업행동 간의 관계로부터 창업행동에 유의적인 역량은 기술·전문가역량이 높게 나타나 창업을 실질적으로 집행으로 이르게 하는 요인으로 기술·전문가역량의 중요성을 시사점으로 거론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창업역량은 창업의 실행에 이르는 필요조건으로 간주되는데 관리역량이나 창의역량은 실질적으로 창업으로 이어지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로부터 창업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의 기획 방향의 우선순위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셋째, 창업역량의 실제 창업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 측면에서는 창의성은 높은 자신감과 창업에 대한 의도가 있다 하더러도 실제 창업으로 연계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관리역량이 실제 창업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자신감인 높은 창업효능감이 있거나 창업효능감이 높을 때 창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제대군인의 창업을 고무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전문가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제공과 이를 위한 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효능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시사점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방법론상에서 살펴보면 제대군인들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육군 출신에 편중된 경향이 있어 결과의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집단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향후 연구에서 지적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 범위가 확대된다면 제대군인의 창업을 고무시키기 위한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독립변수로써 창업역량을 독립변수로 채택 하였는데 창업역량이 절대적인 측정항목이 아니므로 창업행동의 정확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창업행동 뿐만 아니라 나아가 창업성공 까지 연결해 연구의 범위를 확장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다른 변수의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병승(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효능감, 기회인식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강재학·하규수(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이 창업기회인식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벤처창업연구」, Vol.10 No.4, pp.1-12.

김나미·김신섭(2013), 대학생 생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상담학연구」, 14(2), pp. 1125-1144.

김다경·엄태호(2014), 기관장의 관리역량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기업,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한국행정학보」. 제48권 제3호, pp. 295-321.

김대임(2015). 창업보육센터의 창업자 특성 및 운영주체 전략이 입주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호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식·하규수(2011), 전역예정 직업군인의 내적·외적요인이 창업의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2(5), pp. 2078-2086.

김재호(2013), 사회적창업가정신과 사회적지지가 창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정은(2016).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긍정성과 가족의사소통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2), pp. 281-290.

남응우(2014), 제대군인 전직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박경애(2017), 떡 전문점의 지각된 창업위험요인이 창업의도에 따라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철우(2016), 기업가정신과 자기효능감이 지식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연구,「벤처창업연구」 Vol.11 No.6, pp. 11-26.

서성렬(2019), 청년 창업가 역량이 창업의지와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성옥석·박승락(2015), 소상공인 창업자특성이 경영마인드개선과 역량제고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대한경영학회지」. 제28권 제2호, pp. 581-599.

신향숙(2021),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안태욱·이일한·박재환(2017), 창의성 역량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 지에 미치는 영향: 부모협력을 통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벤처창업연구」, 12(6), pp. 25-39.

양수희·김명숙·정화영(201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역량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벤처창업연구」, 6(4), pp. 195-213.

유승옥(2019), 창업가특성이 창업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콘텐츠학회」Vol. 19 No. 10, pp. 165-178.

이기만(2018), 창업가의 특성과 창업 준비성이 사업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이기성(2016). 장기복무 전역군인의 계급에 따른 전직지원 교육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영관급 장교와 준·부사관의 참여동기 차이.「평생교육·HRD연구」, 12(2), pp. 23-43.

이영휘(2021), 중국대학생의 창업교육 학습동기가 창업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의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윤구·윤용진(2015), 유아 부모의 운동행동변화단계와 신체적 자기효능감, 감사성향,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분석.「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26(1), pp. 73-88.

이일현(2014), EasyFlow 회귀분석, 한나래출판사.

이준구(2021), 창업가역량 특성과 기업가정신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서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혜영·김진수(2017),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팀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한국창업학회지」, 12(2), pp. 31-56.

이훈영(2012), 연구조사방법론, 도서출판 청람.

임아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정수성(2019), 군 복무 경험 특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벤처창업연구」14(5), pp. 141-157.

채연희(2016), 대학생의 고용가능성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 셀프리더십과 자기효능감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와 전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대수·성창수(2017), 대학생의 창업역량과 창업의도에 관계: IT 역량, 창의성 역량, 사회적 역량, 시장인지 역량.「벤처창업연구」, 12(1), pp. 101-109.

Ahmad, N. H.(2007), A cross cultural study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entrepreneurial success in SMEs in Australia and Malaysia,"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delaide.

Ajzen, I.(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pp. 179-211.

Barazandeh, M., K. Parvizian, M. Alizadeh & S. Khosravi(2015), Investigating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business performance among early stage entrepreneurs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10 survey data),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5(18)*, pp. 1-12.

Boyd, N. G. and B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 pp. 63-77.

Hughes, M. & Morgan, R. E.(2006), Deconstru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Orientation and Business Performance at the Embryonic Stage of Firm Growth, *Industrial Marketing, 36(5)*, pp. 651-661.

Krueger, N. F. & Brazeal, D. V. (2000), Entrepreneurial potential and potential entrepreneur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 pp. 91-104.

Locke and Collins(2016), Sociology and Entrepreneurship Contribu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Vol.16, No.2*, pp. 47-70.

McGee J. E., & Peterson, M., & Mueller, S. I..(2009),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pp. 965-988.

Morris, M. H., J. W. Webb, J. Fu & S. Singhal(2013), A competency 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pp. 352-369.

Ployhart, R. E. & Moliterno, T. P.(2011), Emergencence of the Human Capital Resource; Multilevel Model, *Academy Management Review, 36(1),* pp35-48.

e-나라지표, 제대군인 현황(http://www.index.go.kr, 2021.12.05.).

접수일(2022년 05월 26일)
수정일(2022년 08월 02일)
게재확정일(2022년 08월 17일)

〈국문초록〉

제대군인의 창업역량이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대군인의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을 매개하여 창업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는 관리역량, 창의역량, 기술/전문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제대군인들로부터 수집된 318개의 설문지를 실증분석에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SPSS Win Ver.22.0과 PROCESS macro3.5의 통계 도구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창업역량의 하위변수인 관리역량, 창의역량, 기술/전문가역량 모두 창업효능감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능력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창의역량이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효능감은 창업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역량의 하위변수인 관리역량과 창의역량만이 창업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술/전문가역량의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역량은 창의역량보다 창업행동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효능감은 관리역량과 창업행동 간, 기술/전문가역량과 창업행동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창업효능감은 창의역량과 창업행동 사이를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육군출신에 편향된 경향이 있어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채택한 창업역량은 절대적인 측정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행동에 대한 정확한 설명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창업행동뿐만 아니라 창업성공에 대한 연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세부적인 다른 변수의 개발 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제대군인, 관리역량, 창의역량. 기술/전문가역량. 창업효능감, 창업행동

최대근(崔大根: 주저자) 육군 3사관학교(군사 학과 준학사)와 호서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사)를 졸업하고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sepc123_@naver.com).

양동우(梁東宇: 교신저자)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교에서 경영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산업자원부 상임위원회 기술신용 보증기금 한국기술거래소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벤처경영학과에 재직 중이다. 벤처평가, 기술평가, 기술금융, 사업성과 분석 등에 주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주요관심 분야로는 벤처경영, 기술경영 등이 있다(dwyang11@nate.com)